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9월11일)

1. “내가 이 반석우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북한 지하교회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공산화 되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그루터기 교회가 한 형태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1990 년대에 몰아닥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서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대거 쏟아져 나왔다가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반석우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사이에 양들을 보내듯이 보내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여라

마태복음 10 장 7 절 말씀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주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놓임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이 즉각 그쳐지도록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방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15600 명 이상의 순교자의 피가 흘렀고,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소서. 북한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북한 땅에 임하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것 처럼 북한땅에도 이뤄지소서.

2. 한국 핵심 시설 타격 훈련 실시



북한이 전면전을 가정한 ‘남(南) 점령’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야외 실기동 훈련(FTX)이 아닌 컴퓨터·도상(圖上) 자료를 활용해 전쟁 실전 상황을 점검하는 지휘소 훈련(CPX)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이 같은 형태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훈련에서 “작전 초기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전쟁 지휘 구심점을 타격하고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마비시킬 것”을 주문하며 지휘봉으로 지도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기도 했다. 북한이 전쟁 훈련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당신의 인의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 곧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라 정녕 그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이는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시편 85편 7~9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한국의 핵심 시설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을 실시하는 북한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전쟁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평안을 얻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3. 해외 위장취업 북한 IT 수천 명, 핵 개발에 기여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테크 기업에 위장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이 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일하는 북한 IT 인력이 수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90%는 북한으로 송금돼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대부분 귀속되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 북한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기도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하여 기회를 낚아채라 시대가 악함 이라”

에베소서 5장 9절~17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 자금 마련을 위해 위장취업, 해킹,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상으로 삼고 있는 핵을 손에서 내려놓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를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머무는 수천의 북한 IT 인력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침병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수술비부터 기름값까지 환자가 부담, 실상은 유상치료



북한이 ‘사회주의 무상치료’를 복지제도로 선전하지만 사실은 환자들이 수술비와 부대비 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검사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와 기름값 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수술 한 번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수술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고 “돈 없으면 고통받다가 죽는 게 현실”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온다고 한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북한 주민이 나아오도록 기도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은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12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무상치료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상은 유상치료제로 운영되는 북한의 의료 현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 돈 없는 이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어, 북한 주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영혼육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치료의 광선이 비취짐으로 질병과 죄로부터 놓임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5. 국경 지역 불법 통화자 & 영상 시청자, 상반기만 300여 명 단속



올해 상반기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불법 휴대폰을 소지하고 외국과 통화하다 단속된 주민 300여 명이 강제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청년 46명이 무더기로 체포돼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불법 휴대폰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년세대에 만연한 한류를 뿌리 뽑기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음을 포함한 외부 정보의 유입이 자유로워져 북한의 모든 백성이 북음을 듣고 영생 얻기를 기도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워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칭송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두루 퍼졌으나”

사도행전 13장 47~49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의 이 고을에서 저 고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 흥왕케 되기를 구합니다. 북음을 비롯한 외부 정보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북한 당국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 북한에 거하는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6. 황주긴등물길공사에 탈북민 가족 강제 동원



함경북도가 3년 전부터 시작한 황주긴등물길공사를 기한 내에 끝내기 위해 탈북민 가족들을 돌격대로 동원해 공사에 내몰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보도는 탈북민 가족에게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들을 대신해 애국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공사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구슬땀을 바치라’고 했다고 한다. 데일리NK 소식통은 ‘탈북자 가족들이 잘 먹고 잘살아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낼 명분도 없으니 돌격대 동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주민보다 더 큰 압박과 감시를 받는 탈북민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네가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몰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신명기 6장 17~19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시받고 착취당하고 차별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활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임을 깨달아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로 인해 눈물 짓지 않고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